

#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

##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서 선 주\*  
Suh, Sun Joo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problem behavior by age and gender. The subjects were 301 third and sixth grade children and their parents. Two-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ir problem behavior. In particular, withdrawal behavior was related to all aspect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i.e. cognitive, social, and physical competence, and global self-worth.

### I. 서론

사회학자 Charles Cooley(1902)와 George Herbert Mead(1934)에 따르면 자기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발달하며 일생 동안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한다. 즉 출생시의 유아는 자기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체와 분리된 개체라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자기-지식과 자기-인식의 단계들을 거쳐 발달하게 된다(Harter, 1982).

자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William James(1890)에 의해 시작된 이래, 자아개념은 꾸준히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자아 또는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심리학자들이 아동의 자존감이 성숙과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Harter, 1982).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인의 자아가 그의 행동과 삶을 결정하듯이 아동의 자아도 그의 생활과 발달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자들은 아동의 자아지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각 연구자들마다 자아개념, 자존감, 자아효율성, 역량지각 등의 구성개념들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자아개념이나 자존감의 구조는 개념적

\* 천안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수준에서 모호하게 정의되어 명백한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들 평가적 차원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성이 없으며 심지어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공인숙, 1989). Coopersmith(1967)를 비롯해서 이러한 자아개념의 모델을 제안한 몇몇 이론가들은 자아개념을 단일차원적 구조라고 결론짓고 있으나, 이런 모델에서는 인지적 능력, 신체적 매력, 도덕성, 인기도, 신체적 기술과 같은 이질적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여 그 총합된 점수로써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 정도를 평가했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Harter(1982)가 아동용 역량지각 척도(PCSC)를 개발하면서 역량지각에 대한 발달심리학자들의 관심은 달라졌다. Harter(1982)에 의하면 아동이 약 8세경이 되면 역량의 각 영역간의 구분을 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영역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초월해서 전반적인 자아가치까지도 갖는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역량이란 사회나 학교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속성을 구별해 내는 데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역량지각의 개념은 Coopersmith가 제안한 자존감의 분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자아평가 척도에 대한 방법론적, 개념적 단점을 보완한다고 여겨진다(Cause, 1987; Harter, 1982).

이처럼 Harter에 의해 시작된 역량지각 연구는 그 후 Stipek(1985)과 Cause(1987)의 연구에 의해 영역별 역량지각 개념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길지 않아서 수행된 연구가 적으며, 국내에서도 아직 소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자아에 대한 지각이 인간의 발달과 적응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자아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역량지각과 적응 또는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세분화된 영역에 관한 아동자신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역량지각과 비교적 근접한 개념인 자아개념 또는 자아존중감과 적응, 정신건강 등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대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적응, 정신건강, 행동문제를 관련시킨 연구들은 자존감이 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Rosenberg(1979)는 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안, 대인 예민성, 신경증 수준이 높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반면 긍정적 자존감의 소유자는 자신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근심이나 걱정이 적은 반면, 부정적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열등감이나 불확실감을 느끼므로서 두려움이나 도피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신종순, 1990)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 구성요인의 모든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아동의 경우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가진 아동들은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에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손순자, 1993).

요컨대 자기가치는 한 인간의 기분이나 정서 상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써,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아동은 쾌활하고 사교적이며 행복하게 느끼고, 이 행복감은 아동의 동기형성에 영향을 미쳐 활력과 흥미를 수반한다(Harter, 1988). 반면 낮은 자아개념을 보고한 아동은 불안, 고립, 우울과 같은 부정적 특성을 보인다(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전술한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이 다양한 영역에 걸친 자신의 역량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추측되나, 기존의 연구들은 우울이나 불안 또는 학교적응과 같은 부분적 행동문제들만을 다루고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적응이나 행동문제를 보이는 많은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공부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아동기에 보였던 부적응의 징후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심각한 장애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홍경자, 1986).

이와 같은 연구상의 한계와 아동기 행동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신의 역량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보다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아동 행동

문제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역량지각에서의 성차 및 연령차를 고찰하고, 또 행동문제상의 연령 및 성차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의 역량지각은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남녀 아동 및 그들의 부모이며, 아동의 가정환경 수준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을 달리해 두 개의 초등학교를 유의표집하였다. 약 8세 이후에 역량의 각 영역에 대한 구별된 지각을 할 수 있다는 Harter(1982)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이 선정되었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집 단	빈도(백분율)
아동의 학년	3학년	153(50.8)
	6학년	148(49.2)
아동의 성	남	145(48.2)
	여	156(51.8)
부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30(10.0)
	고졸	159(52.8)
	대졸이상	112(37.2)
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2(17.3)
	고졸	193(64.1)
	대졸이상	56(18.6)
계		301(100)

### 2. 측정도구

#### 1) 아동의 역량지각 측정 도구

아동의 역량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2)의 역량지각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근간으로 김치영(1987), 공인숙(1989), 이주리(1994) 등의 역량지각척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역량, 사회역량, 신체역량, 전반적 자아가치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는 아동학 전공자 3명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구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 .85로 나타났다.

## 2) 아동의 행동문제 측정도구

아동의 행동문제 측정도구는 Achenbach (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원래 Achenbach의 척도에서는 9가지의 행동문제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이 주로 보이는 행동문제라고 지적된(한미현, 1996) 불안행동,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 등의 5개 영역만을 다루므로, 이들 영역에 해당되는 문항들만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행동문제 척도는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이 불안행동은 .77, 과잉행동 .79, 미성숙행동이 .70, 공격행동이 .75, 위축행동이 .70,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1997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3학년 4학급, 6학년 4학급 316명의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쌍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역량지각 질문지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교에서 실시되었고, 행동문제 질문지는 담임교사가 아동을 통해 부모에게 보내고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결혼 가정의 아동의 경우, 아동용 질문지와 부모용 질문지의 짝이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부실개지된 질문지를 제외시키고 301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역량지각 점수 및 행동문제 점수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간에 상관성이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를 구하였으며, 이상의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역량지각

아동의 연령(3학년, 6학년)과 성별(남, 여)에 따른 역량지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신체역량에서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과 역량지각 전체에서는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3학년(14.76)은 6학년(12.84)보다 또한 남아(14.51)가 여아(12.84)보다 신체역량을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3학년(15.22)은 6학년(13.64)보다 전반적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하며, 역시 3학년(58.42)이 6학년(51.21)보다 역량지각 전체에서 높은 점수

〈표 2〉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역량지각

하위범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인지역량	연령(A)	1	13.67	13.67	1.93
	성별(B)	1	.40	.40	.06
	A×B	1	.54	.54	.08
	오차	297	2105.71	7.09	
사회역량	연령(A)	1	6.26	6.26	.87
	성별(B)	1	.83	.83	.12
	A×B	1	9.45	9.45	1.32
	오차	297	2134.02	7.19	
신체역량	연령(A)	1	277.42	277.42	20.49***
	성별(B)	1	129.11	129.11	9.54**
	A×B	1	.21	.21	.02
	오차	297	4020.84	13.54	
전반적 자아가치	연령(A)	1	187.88	187.88	22.00***
	성별(B)	1	21.73	21.73	2.54
	A×B	1	6.72	6.72	.79
	오차	297	2536.02	8.54	
역량지각 전체	연령(A)	1	1318.43	1318.43	16.03***
	성별(B)	1	209.11	209.11	2.54
	A×B	1	.57	.57	.01
	오차	297	24429.76	82.26	

\*\*p<.01 \*\*\*p<.001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 2.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행동문제

아동의 연령(3학년, 6학년)과 성별(남, 여)에 따른 행동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난 비와 같이 불

안행동 및 공격행동에서 성차가 나타났으며, 위축행동에서는 연령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아(21.58)는 남아(20.50)에 비해 불안행동 점수가 높으며, 공격행동은 여아(10.11)보다 남아(11.09)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3학년(15.29)에 비해 6학년(15.98)은 위축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행동문제

하위범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불안행동	연령(A)	1	11.35	11.35	.78
	성별(B)	1	90.02	90.02	4.90*
	A×B	1	10.84	10.84	.59
	오차	297	5453.72	18.36	
과잉행동	연령(A)	1	1.88	1.88	.09
	성별(B)	1	7.46	7.46	.36
	A×B	1	3.04	3.04	.15
	오차	297	6129.94	20.64	
미성숙 행동	연령(A)	1	5.68	5.68	.63
	성별(B)	1	7.64	7.64	.85
	A×B	1	7.66	7.66	.85
	오차	297	2667.46	8.98	
공격행동	연령(A)	1	.84	.84	.18
	성별(B)	1	72.56	72.56	15.63***
	A×B	1	7.31	7.31	1.57
	오차	297	1378.54	4.64	
위축행동	연령(A)	1	36.04	36.04	3.86*
	성별(B)	1	2.55	2.55	.27
	A×B	1	.61	.61	.06
	오차	297	2771.12	9.33	
행동문제 전체	연령(A)	1	4.49	4.49	.03
	성별(B)	1	.44	.44	.00
	A×B	1	33.09	33.09	.19
	오차	297	49792.36	167.65	

\*p&lt;.05 \*\*\*p&lt;.001

### 3.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와의 관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역량지각과 행동문제의 제 하위요인들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역량을 제

외한 역량지각의 각 하위차원은 행동문제 총점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특히 행동문제 하위영역 중 위축행동은 역량지각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불안행동은 인지역량, 사회역량 및 역량지각전체와, 미성숙행동은 인지역량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지만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은 역량지각의 어떤 하위차원과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표 4〉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

	역량지각전체	인지역량	사회역량	신체역량	전반적 자아가치
불안행동	-.12*	-.14*	-.15**	-.05	-.06
과잉행동	-.04	-.07	-.05	-.05	-.08
미성숙행동	-.11	-.14*	-.11	-.00	-.10
공격행동	-.05	-.05	-.11	-.05	-.09
위축행동	-.32***	-.16**	.27***	-.25***	-.28***
행동문제전체	-.16**	-.15**	-.17**	-.05	-.15**

\*p<.05 \*\*p<.01 \*\*\*p<.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와 함께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역량지각과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지각의 하위영역 중 신체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에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3학년이 6학년 보다 자신의 신체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인숙(1989), 이주리(1994)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점차적으로 낮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아동의 경우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며, 역량을 평가할 때 실제역량보다는 외적 특성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에 의존하고 부정적 피드백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학년 아동은 자신의 내적인 특성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역량지각의 판단 기준을 세분화하여 자신을 지각(Stipek, 1984)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역량지각의 하위영역 중 신체역량 영역에서만 성차가 발견되고 다른 영역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역량을 높게 지각한다는 대부분의 역량지각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신체역량에서도 성차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한종혜(1995)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신체역량에서의 성차는 아마도 운동과 신체적 활동이 주로 남성의 영역이라는 일반적인 성고정관념이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아는 남아에 비해 불안행동을 더 많이 보이지만, 반대로 남아는 여아에 비해 공격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외면화 증후군과 내면화 증후군으로 대별되는데, 불안행동은 내면화 증후군에 포함되며, 이러한 내면화 증후군은 대체로 남아들보다 여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보경 등, 1992). 반면 남아의 경우 주로 과잉행동이나 야뇨증, 반사회적 행동 등의 외현적 증후를 보인다고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인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남아의 경우 공격적 행동이 남성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관대한

태도로 받아들여지거나 묵인되는 데 반해 여아에게는 내면적인 민감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흔하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남아, 여아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차이와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상호작용한 결과 아동의 행동상의 차이를 낳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6학년 아동은 3학년 아동에 비해 위축행동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행동에서는 연령차는 없고 성차만 발견된다는 선행 연구(한미현, 1996; 김리은, 1996) 결과와 상반된다. 본 연구에서 6학년 아동이 더 높은 위축행동을 보인 것은 아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어린 아동들과는 달리 환경에서 오는 부정적 피드백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6학년 아동 중 많은 아동이 발달 과정상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다.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 중 특히 위축행동은 인지, 사회, 신체역량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자신의 인지적 능력, 사회적 역량, 신체적 유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서 높은 가치감을 느낄 때, 자신있게 행동하고 다른 아이들과 자발적으로 잘 어울리며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지역량과 사회역량은 불안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데, 자신이 인지적으로 유능하지 못하고 주변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능숙하게 상호작용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이 예민하며 기분이 자주 바뀌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을 많이 함

을 의미한다. 한편 미성숙행동은 인지역량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어, 자신이 인지적으로 유능하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어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기보다 어린 아동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등 나이보다 어린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상태를 보이며, 성취동기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부정적인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훨씬 적게 보이지만, 낮은 자아개념을 지닌 아동은 불안이나 고립 우울과 같은 부정적 특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Harter, 1988;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손순자, 1993) 결과들과 상통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하여 추후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역량지각 척도상의 제한점으로서 Harter(1982)가 제안한 선택형 문항 즉 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먼저 부정적 특성과 긍정적 특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은 실제 응답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의 행동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정보는 대개 부모나 아동을 잘 알고 있는 성인, 혹은 아동 자신으로부터 입수한다. 그런데 부모 설문에 의한 아동행동평정법은 아동과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부모가 평정한다는 점과,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 또한 아동 자신의 자가평정이나 교사평가보다 타당하다(Rowlison & Felner, 1988)는 점 등에서 임상평가에 앞선 예비판별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설문에 의한 평가 방법은 전



문 지식이 없는 부모가 평가한다는 점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의 편파성 등으로 인하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관찰자에 의한 행동 관찰기법 등도 함께 고려하는 보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행동문제와 관련된 아동 개인의 특성만을 고찰하였으나,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정도나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영향력, 그리고 이 둘간의 상호작용적 효과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지역의 아동들을 유의 표집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리은(1996).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조현춘·정대영·박영균 역(1992). **아동기 행동장애**. 서울: 성원사.
-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순자(1993). 국민학생의 자아개념과 적응행동과의 관계 분석.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종순(1990).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6(2), 5-21.
- 한종혜(1995).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29-141.
- 홍경자(1986).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 4-1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Cause, A. M. (1987). School and peer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A test of domain specific self-perceived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87-291.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N. Freeman.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and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e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James, W. (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Vol.1). New York: Henry Holt.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c.
- Rowlison, R. T., & Felner, R. D. (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3)*, 132-144.
- Stipek, D. J. (1984). Young children's performance expectancies: Logical analysis or wishful thinking? In J. Nicholls(Eds.),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Greenwich, CT: JAI Press.